

< 예수님이 하신 일 >

마태복음 8:16,17 / 새찬송가 26 (통일 14) 구세주를 아는 이들

1.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마8:16,17).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먼저 쫓아내신 이유는 질병도 악하지만 마귀와 귀신들이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마12:29).

귀신은 우리 존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파괴하는 질병보다 더 악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이 관계에서 내 존재가 주어지고 내 존재가 있어야 내가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들을 먼저 쫓아내신 후 병을 고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표적 가운데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막6:17).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꾸짖어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2.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사역은 말씀으로 하신 사역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님 즉 진리의 말씀에서 옵니다(요8:32).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로 나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만을 말하는데 이런 자유만 추구하다가 인본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이는 마귀와 죄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로 유혹하여 마귀의 종이 되게 하고 마음을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요일3:8).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열여덟 해 동안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치실 때도 그 여인이 사탄에게 매인 바 되어 자유를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13:14,15).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귀와 죄와 질병과 저주의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마귀와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요8:34-36). 이렇게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평안을 누리고 병 고침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3.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후에는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성령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후에 드디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고후3:17).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의 본질도 자유이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마귀와 죄악으로부터 해방의 자유를 얻는 사람은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은 그 무슨 일이나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막9:22,23).

성령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지역에서나 주의 일 즉 선교와 구제와 전도와 가르침과 병 고침과 축복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행1:8).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대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까닭에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요14:12).

<적용&실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첫 부분에 적극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